

일부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과의 관련성

박경화 · 최혜정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Kyung-Hwa Park · Hye-Jung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nyang Wome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Hye-Jung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nyang Women's University, 200 Salgoji gil(Rd), Seongdong-gu, Seoul, Korea, Tel : +82-2-2290-2570, Fax : +82-2-2297-3867, E-mail : choihj8745@naver.com

Received: 11 January 2015; Revised: 26 March 2015; Accepted: 6 April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on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389 dental hygiene students in three college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5 questions of general characteristics, 10 questions of self-efficacy, 18 questions of major satisfaction, and 13 questions of career identity by Likert 5 scale. Cronbach's alpha was 0.92 in self-efficacy, 0.90 in major satisfaction, and 0.88 in career identity in the previous studies. Cronbach's alpha in this study was 0.911 in major satisfaction, 0.840 in self-efficacy, and 0.8090 in career ident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The score was 3.47 in self-esteem, 3.79 in major satisfaction, and 3.03 in career ident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ased on grade,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case of career ident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characteristics, motivation for college choi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egative self-esteem, positive self-esteem, general satisfaction, awareness satisfaction, curricula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The influencing factors on career identity were aptitude, interest,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in order($p < 0.001$).

Conclusions: The career identity is closely related to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It is desirable to open a variety of education courses and to develop systematic and practical programs to the students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identity.

Key Words: career identity, dental hygien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색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치위생과 학생

서론

고령화시대에 국민들의 구강관리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치과의료분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이 신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역할 증대를 위해 대학에서의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키

고 졸업생들의 능력과 자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분야에 대한 지식획득을 위한 환경적 탐색과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기탐색 등 활발한 진로탐색활동을 통해¹⁾ 진로정체감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치위생과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은 이미 직업적 선택을 하고 들어온 상태이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전공을 선택해야 함에도 취업률, 학교 성적, 부모의 권유 등에 따라 선택되어 학과를 선택하고 입학하게 되었기 때문에 치과위생사로서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치위생 업무에 임하게 된다면,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갖기 쉽게 된다²⁾.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전공학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진로에 대한 자기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³⁾.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공 만족도가 낮아지면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전공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였다⁴⁾. 인간은 누구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 발달하는 동안 사회화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기본성격을 형성해 나가며,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평가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⁵⁾. 즉 자신이 가족 관계 속에 속함과 동시에 또한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또래 집단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정체감에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를 의미 한다⁶⁾.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과제수행 및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개인이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4, 6)}.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력과 학업적 적응능력이 높게 나타나고^{5, 7)}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생활과 개인의 자아실현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⁵⁾.

진로정체감은 직업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서 자신의 목표, 흥미 그리고 재능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하고 안정된 상(image)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고 모호한 환경적 상황에 직면하여 적

합한 결정을 내리는 자기 확신과 관련이 깊다^{1, 8)}.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다면 명확하고 안정된 진로준비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²⁾, 낮을수록 진로결정을 못한다고 하였다⁹⁾. 일반적으로 치위생(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타 전공에 비해 직업을 선택하고 들어온 상태이고, 취업률 또한 높아 치과위생사로서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치위생 업무를 수행한다면,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는 이직률과도 관련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2, 10)}.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 진로정체감 관련 선행연구로는 자아존중감과 전문직업관 등¹¹⁻¹³⁾,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³⁾,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의 관련성¹⁴⁾,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의 비교¹⁰⁾, 진로정체감과 취업준비행동¹⁵⁾ 등 관련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이 취업하기 전 대학생활 중에 스스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방향 설정과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5월 26일부터 2014년 6월 10일까지 수도권에 소재하는 3개 대학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가 설문지에 자기기입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전체 설문지 가운데 결측값이 많은 6부를 제외시키고 389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 성격, 임상실습경험, 임상실습 만족도, 진학동기로 구성된 5문항이었고 자아존중감은 Rogenberg¹⁶⁾가 개발하고 전¹⁷⁾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

Table 1. The reliability of research tools

Variables	Previous research		Research	
	Number of question	Cronbach's alpha	Number of question	Cronbach's alpha
Self-esteem	10	0.92	10	0.911
Major satisfaction	18	0.90	18	0.840
Career identity	14	0.88	13	0.890

였다. 이는 총 10문항으로 부정 5문항, 긍정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공만족도는 김과 하¹⁸⁾가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관계만족 3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 정도로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및 재능 등에 관한 상을 소유한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Holland 등¹⁹⁾이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의 진로정체감을 김과 김²⁰⁾이 변안하고 권과 김²¹⁾이 수정 보완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실시 후 치위생(학)과 대학생에 맞게 13문항으로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도구는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를 계산 하였고,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은 5점 척도를 역환산하여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자아 존중감 Cronbach's $\alpha=0.92^{17)}$, 전공만족도 Cronbach's $\alpha=0.90^{18)}$, 진로정체감 Cronbach's $\alpha=0.88^{2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Cronbach's $\alpha=0.911$, 자아 존중감 Cronbach's $\alpha=0.840$, 진로정체감 Cronbach's $\alpha=0.890$ 로 나타났다<Table 1>.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8.0(SPSS Inc., Chicago, IL,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고, Tukey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의 하위항목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수준은 <Table 2>과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전체평균 3.47점이었으며, 하부요인으로 부정 3.25점, 긍정 3.68점으로 높았다. 전공만족도 전체평균은 3.79점이었으며, 하부요인으로 교과만족 3.52점, 관계만족 3.62점, 일반만족 3.74점, 인식만족 4.03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진로정체감 평균은 3.03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서는 학년에서 1학년 군과 3학년 군이 3.52점으로 같았고, 2학년 군이 3.37점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5$). 진학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에서 3.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위권유 3.49점과 취업률 3.41점, 학교 성적이 3.2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임상실습만족도에서 만족한다 3.69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3.34점, 만족하지 않는다 3.20점으로 유사하였다($p<0.001$). 성격에서는 긍정적이 3.58점으로 부정적 2.95점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p<0.001$).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학년에서 1학년 군 3.93점으로 가장 높았고, 3학년 군 3.75점, 2학년 군 3.7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p<0.01$). 진학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에서 4.06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위권유 3.77점과 취업률 3.74점으로 유사하였으며, 학교 성적이 3.58점으로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임상실습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 3.97점, 보통이다 3.56점, 만족하지 않는다 3.48점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01$). 성격에서는 긍정

Table 2. The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Variables	Number of question	Mean	SD
Self-esteem	10	3.47	0.53
Negative	5	3.25	0.58
Positive	5	3.68	0.60
Major Satisfaction	18	3.79	0.49
General satisfaction	6	3.74	0.59
Recognition satisfaction	6	4.03	0.61
Course satisfaction	3	3.52	0.60
Relationship satisfaction	3	3.62	0.68
Career identity	13	3.03	0.62

Table 3. The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subjects

(N=389)

Variables	N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Mean±SD	t/F (p=value*)	Mean±SD	t/F p=value*	Mean±SD	t/F p=value*
Grade							
First	115	3.52±0.53	3.582 (0.029)	3.93±0.47 ^a	7.238 (0.001)	3.11±0.61	2.011 (0.135)
Second	149	3.37±0.51		3.71±0.45 ^b		2.95±0.61	
Third	125	3.52±0.53		3.75±0.52 ^b		3.04±0.65	
Motivation for entering a college							
Employment rate	220	3.41±0.50 ^b	8.445 (<0.001)	3.74±0.44 ^b	10.448 (<0.001)	2.91±0.54 ^b	25.821 (<0.001)
Advice	72	3.49±0.51 ^{a,b}		3.77±0.45 ^b		3.00±0.57 ^b	
Aptitude and interest	66	3.73±0.56 ^a		4.06±0.54 ^a		3.58±0.67 ^a	
School record	31	3.26±0.56 ^b		3.58±0.51 ^b		2.76±0.57 ^b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57	3.50±0.53	0.899 (0.369)	3.75±0.51	-1.177 (0.240)	3.08±0.67	1.386 (0.167)
No	232	3.45±0.52		3.81±0.47		3.00±0.59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							
Unsatisfied	26	3.20±0.66 ^b	13.195 (<0.001)	3.48±0.63 ^b	21.442 (<0.001)	2.82±0.51 ^b	9.984 (<0.001)
Moderate	88	3.34±0.49 ^b		3.56±0.41 ^b		2.88±0.59 ^b	
Satisfied	80	3.69±0.49 ^a		3.97±0.43 ^a		3.28±0.69 ^a	
Character							
Positive	317	3.58±0.47	10.142 (<0.001)	3.83±0.47	3.258 (<0.001)	3.11±0.62	6.155 (<0.001)
Negative	72	2.95±0.47		3.62±0.51		2.68±0.51	

^{a,b}denotes the same subgroup by Tukey test

*by one-way ANOVA or t-test

294 persons, exclusion the case without the clinical training experience

적이 3.83점으로 높았고, 부정적이 3.62점으로 낮아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에서는 진학동기에서 적성과 흥미 3.58점으로 높았고, 주위권유 3.00점, 취업률 2.91점, 학교성적 2.76점으로 유사하였다($p<0.001$). 임상실습만족도에서 만족하지 않는다와 보통이다가 2.82점과 2.88점으로 비슷하였고, 만족한다가 3.28점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성격에서는 긍정적이 3.11점으로 부정적 2.68점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p<0.001$).

3.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과 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 하위항목 간의 관련성 분석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진로정체감은 상호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수로 대상자의 특성과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1.330$,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9.0%였다. 자아존중감($\beta=0.351$)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고 적성과 흥미($\beta=0.265$), 전공만족도($\beta=0.271$) 순이었다.

총괄 및 고안

치의학의 사회적 변화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전문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의 활동과 그 역할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이 장차 전문직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위생학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⁴⁾. 이러한 진로정체감을 신장시키기 위한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치위생과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의 정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N=389)

Variables	Negative self-esteem	Positive self-esteem	General satisfaction	Recognition satisfaction	Course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Negative self-esteem	1						
Positive self-esteem	0.586**	1					
General satisfaction	0.293**	0.508**	1				
Recognition satisfaction	0.164*	0.289**	0.623**	1			
Course satisfaction	0.162*	0.320**	0.505**	0.383**	1		
Relationship satisfaction	0.209**	0.331**	0.412**	0.368**	0.573**	1	
Career identity	0.439**	0.400**	0.498**	0.369**	0.226**	0.231**	1

*p<0.01,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lated factors of career identity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value*
Aptitude and interest	0.443	0.094	0.265	4.696	<0.001
Self-esteem	0.416	0.076	0.351	5.504	<0.001
Major satisfaction	0.356	0.083	0.271	4.296	<0.001
F=51.330(p<0.001), R ² =0.49, adjusted R ² =0.440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Career identity

Excluded variables: Motivation for entering a college 1(Advice=1), Motivation for entering a college 2(School record=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1(Moderate=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2(Satisfied=1), Character(Positive=1)

도를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전체평균 3.47점이었으며, 임과 윤¹¹⁾의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이 2.79점으로 본 연구보다도 다소 낮았다. 그러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와 하²²⁾, 성 등²³⁾의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의 경우 간호 전문직 사회화가 확립되고 전문직으로서 위상이 확고함이 간호학생의 자기의 평가나 판단에 수반되는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존중감은 취업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특징이며 직무능력이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²⁴⁾. 그러므로 간호과 학생 보다 낮게 나타난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신장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만족도 수준은 3.79점으로 정과 이¹⁴⁾, 정 등²⁶⁾의 3.51이나 3.11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중 교과만족이 3.5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인식만족이 4.0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정과 이¹⁴⁾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인식만족의 경우 치위생과의 높은 취업률로 최근 학생들의 치위생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의 결과로 여겨

지며, 교과만족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업 부담이 과중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복잡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환자와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실습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느껴 교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3.03점으로 배 등¹⁵⁾의 연구에서는 3.6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3년제 대학 전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배 등¹⁵⁾의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의 3, 4학년으로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3년제는 임상실습 및 학업부담과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다른 직종과의 차별성 결여로 낮고, 4년제에서 3, 4학년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습경험 및 특성화된 학교수업을 통한 교육의 실시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설명변수를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서는 1학년과 3학년이 3.52점으로 같았고, 2학년이 3.37점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5). 이 등¹²⁾의 연구에서 학년은 고학년이 3.61점 저학년이 3.48점으로 고학년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제간, 학교간 교과과정에서 주어지는 수업이나 임상실습 등의 부담감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진학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에서 3.73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 성적이 3.26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1$). 임상실습만족도에서 만족한다 3.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인 성격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 등¹³⁾의 연구결과에서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외형적일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학동기를 고려하여 치위생학에 흥미를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학생상담 전략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1학년에서 가장 높았고, 진학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에서 가장 높았으며 학교 성적은 낮았다. 임상실습만족도에서는 만족할수록 전공만족도도 높았으며, 긍정적인 성격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인 정 등³⁾의 연구에서도 1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았으나, 정 등²⁶⁾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 본 연구와 상이하였다. 이는 학교 간 교과과정 편성표에 따라 학년 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전공별로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종단적 연구를 통해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만족도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등¹²⁾, 정과 신²⁷⁾의 연구에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학한 학생이 학교성적에 맞추어 선택한 학생보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 등²⁶⁾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공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에서는 진학동기가 적성과 흥미인 경우 3.58점으로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았으며, 김 등¹⁰⁾의 연구에서는 높은 급여가 2.58(4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3.28점으로 높았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 등²⁶⁾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긍정적인 성격일수록 진로정체감이 3.11점으로 의미있게 높았다.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명확하고 안정된 진로준비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²⁾ 졸업 후 현장에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추후 진로정체감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들을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의 하위 항목간의 관련성에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진로정체감은 상호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등¹²⁾, 정과 신²⁷⁾의 연구에서도 유사하였으며 또한 전공만족

도와 진로정체감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한 정 등²⁶⁾, 조²⁸⁾, 양과 이²⁹⁾의 연구와 전공만족도는 장래 진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직업선택에 대한 자기 확신이 뚜렷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조와 이³⁰⁾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고, 전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진로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는 학생들에게 진로지도와 직업의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³¹⁾.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수로 대상자의 특성,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성과 흥미,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 등²⁶⁾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 진학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양과 이²⁹⁾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신입생 때부터 자아존중 프로그램 및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¹⁰⁾.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중요하고, 적성과 흥미,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영향 요인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의 밀접한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편의추출해서 조사한 내용으로 전체 치위생과 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학제, 지역 등의 포괄적인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도권에 소재하는 3개 대학 치위생과에 재학중인 389명을 최종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전체평균 3.47점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3.79점, 진로정체감은 3.03점이었다.
2.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의 경우 학년, 진학동기, 임상실습만족도와 성격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진로정체감에는 진학동기, 임상실습만족도, 성격에 의해 차이가 있었다.
3. 부정적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진로정체감간의 상호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4. 치위생과 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성과 흥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로정체감은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미래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역량강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긍정적인 견해를 높이고, 단계별 심층면담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적성, 관심사 등을 파악하여 전공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진로지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Lee HJ. Differences in career openness,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identity by sex and level of social anxiety. *J Educ Res* 2008; 46(1): 77-99.
2. Cho H, Lee GY.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ublic Health Nurs* 2006; 20(2): 163-73.
3. Jung GO, Choi GY, Bae JY.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1): 61-8.
4. Kang YS, Hwang SK.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 Ind Coop Soc* 2013; 14(7): 3301-9. <http://dx.doi.org/10.5762/KAIS.2013.14.7.3301>.
5. Namgung SH, Kim HJ. The effect of self-esteem on department satisfac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a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Res Child Edu and Care* 2012; 8(1): 57-71.
6. Baumeister RF, Campbell JD, Krueger JI, Vohs KD. Exploding the self-esteem myth. *Sci am* 2005; 292(1): 84-91. <http://dx.doi.org/10.1038/scientificamerican0105-84>.
7. Jung JW. The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career maturity". *J Korean Hom Eco Edu Ass* 2014; 26(1): 101-18.
8. Holland JL, Gottfredson DC, Power PG.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 Pers Soc Psychol* 1980; 39(6): 1191-200. <http://dx.doi.org/10.1037/h0077731>.
9. Holland JL, Holland JE.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 Couns Psychol* 1977; 24(5): 404-14.
10. Kim CH, Kim JH, Hong SH. Comparison of career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educational system. *J Korea Acad Ind coop Soc* 2011; 12(1): 327-34.
11. Lim SA, Youn HJ. Influencing factors for the empowerment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4): 669-76. <http://dx.doi.org/10.13065/iksdh.2013.13.4.699>.
12. Lee JR, Kim HJ, Ko HJ. The effect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1): 39-47.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1.39>.
13. Kim JH, Hong SH, Kim CJ, Nam SH. A study of self-esteem and professionalism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educational system. *J Dent Hyg Sci* 2011; 11(6): 527-33.
14. Jeong MK, Lee JY.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6): 1241-9.
15. Bae SS, Noh HJ, Mun SJ.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by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on job preparation behavior. *J Korean Soc Schl Hea Edu* 2014; 15(1): 45-59.
16.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Doctoral dissertation]. NJ: Univ. of Princeton, 1965.
17. Je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University J* 1974; 11: 107-24.
18. Kim GH, Ha HS. A study on the factors for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on their majors. *Korean J Counseling* 2000; 1(1): 7-20.
19. Holland JL, Daiger DC, Power PG. My vocational situation. 1st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0: 8.
20. Kim KH, Kim BW.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J Counsel Psychol* 1997; 9(1): 311-33.
21. Kwon YH, Kim CN.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02; 13(2): 216-29.
22. Choi J, Ha NS.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 2009; 15(1): 54-63.
23. Sung KW, Kim DS, Han MY, Gwak EY, Kim GY, Kim

- EJ, et al. Relationships between patient privacy act, nursing ethic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J Soc Sci* 2011; 10: 267-88.
24. Shin SH.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of health college students. *J Dent Hyg Sci* 2012; 12(3): 217-25.
25. Jung SH, Kim EH, Kim HS. A study on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students fro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thei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major in different regions. *J Korean Soc Dent Hyg* 2011; 11(1): 69-78.
26. Jung JS, Jeong MJ, Yoo IY.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4; 20(1): 27-36.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1.27>.
27. Jeong MH, Shin MA.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06; 12(2): 170-7.
28. Cho IY.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 Korea Acad Ind Coop Soc* 2014; 15(5): 2937-45.
29. Yang YO, Lee SO. The 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e nursing students. *J Korean Data Anal Soc* 2012; 14(2): 979-89.
30. Cho H, Lee KY.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ublic Health Nurs* 2006; 20(2): 163-73.
31. Moon IO, Lee KW.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0; 16(1): 83-91.